

2002년도 방사선 이용통계 책자 발간



과학기술부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“2002년도 방사선이용통계” 책자를 발간하였다.

동 책자는 용어해설과 함께 「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기관 현황」, 「방사성동위원소등 생산 및 수입현황」, 「방사선관련 면허 현황」을 포함한 총 27개 항목 39종의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.

동 책자의 주요 통계 현황은 원자력관련자 뿐만 아니라 방사선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통계책자 주요내용

- 원자력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산업체, 비파괴검사전문업체, 판매전문업체, 공공기관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기타기관으로 구분
 - 2001년말 현재 총 인허가 기관은 1,822개 기관으로 매년 약 10% 증가
-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용도는 우리 일상생활 및 산업·연구 등 다종 다양하며 동 통계에서는 대표적인 50가지 용도로 구분하여 수록
 - 방사성동위원소의 경우 산업체는 「성분분석」, 「두께측정」, 「준위측정」, 공공기관은 「수질오염 물질분석」, 「잔류농약측정」, 교육 및 연구기관은 「성분분석」, 「교육연구실험」, 의료기관은 「치료 및 진단용」으로 주로 이용
 - 방사선발생장치의 경우 산업체는 「방사선투과검사」, 「성분분석용」, 공공기관은 「수화물 검색용」, 교육 및 연구기관은 「물질분석용」, 의료기관은 「치료용」으로 주로 이용
- 2001년도 개봉선원의 국내생산은 전년대비 약 30% 증가
 - 수입 및 생산대비 규모는 약 94 : 6 으로 수입의 비중이 높음
 - 개봉선원의 국산보급율은 Ir-192의 양산으로 전년도에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2001년도에 12% 수준까지 성장
- 국가별 수입 규모로서 개봉선원은 스위스, 일본, 미국, 호주등에서, 밀봉선원은 캐나다, 미국 등에서 주로 수입
- 방사성동위원소취급에 관한 면허는 1962년에 최초로 과학기술부에서 발급
 - 현재 면허 총수 5,096건(일반면허 3,653건, 감독면허 646건, 특수면허 797건)